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10) (5/20/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7 장 헛된 야망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피함, 1-2 절

렘 17:5 -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벧전 5:5 -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1. 사람이 그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허망한 삶입니다(렘 17: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의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나 그 어떤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람과 피조물, 심지어 생명 없는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연약한 인간은 해와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을 숭배하기도 한다. 롬 1:21-23 -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심지어 생명 없는 물질(돈)을 의지하기도 한다. 성경은 분명히 돈을 숭배하듯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가르친다. 딤후 6:10 -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마 6:24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재물을 신처럼 섬길 수도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의 바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고 알며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모욕과 비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롬 1:16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했다. 딤후 1:8 -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며 복음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딤후 1:11-12 -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동행의 역사를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2.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나 당신의 힘 있는 친구들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더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풍채가 훌륭하거나 외모가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조금만 아파도 망가져서 못쓰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신에게 뛰어난 재능이나 재주가 없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해하거나 못마땅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천부적인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족해하며 자랑하거나 못마땅해하며 불평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해설:

인간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인간은 매 순간의 호흡에 의존하며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 146:3-4 -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진정한 도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시 146:5 -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자랑은 인간적이며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체이어야 한다. 렘 9:23-24 -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에게 맞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마 25 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마 25:14-15 -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에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에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에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달란트 양을 가지고 차별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 한 달란트도 매우 큰 돈이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재능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각자가 분량대로 받은 재능과 삶의 선물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다양한 선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2. 내가 가진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3. 세계 선교 현장에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